

주간 통일정세

2017-04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1	대북매체 “北 20일 전군에 ‘전투동원태세’ 명령”(연합뉴스)
		北 김정은 ‘국산화’ 강조에 토종 만화캐릭터 활성화(연합뉴스)
		눈오나 비오나 인민사랑…北 김정은 애민 이미지 구축 주력(연합뉴스)
	1.22	北 김정은, 또 軍부대 시찰…훈련열풍 일으켜야(연합뉴스)
		北 김정은 생일 기념행사 준비 시동…경축 분위기 조성(연합뉴스)
		北매체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 짧게 보도(연합뉴스)
	1.23	김정은, 민용항공총국장 사망에 직접 빈소 찾아 조의(연합뉴스)
		北 ‘삼수’ 끝에 독일 주재 대사 박남영 임명(연합뉴스)
		北 올림픽위원장 리종무에서 김일국으로 교체(연합뉴스)
		北 푸에블로호 사건 49주년 맞아 美에 “교훈 새겨야”(연합뉴스)
		北 자체제작 만화영화 ‘고주몽’ 선전…민족분열 끝내야(연합뉴스)
		北 복잡해진 국제정세에 “자주적 대외정책 견지”(연합뉴스)
		北신문, 위험천만한 작업현장 전하며 ‘충성’ 독려(연합뉴스)
	1.24	김정은 어록 관리 총책은 조용원 부부장(연합뉴스)
		北 노동신문, 우리 ICBM 요격 시도는 곧 전쟁(연합뉴스)
1.25	北강기섭 민용항공총국장 장례식 열려…김정은 불참(연합뉴스)	
	北 작곡가 구승해 폐렴으로 사망(연합뉴스)	
1.26	김정은, 여명거리 건설현장 시찰…태양절까지 무조건 완공(연합뉴스)	
	北 김정은 신년사 지시 따라 ‘국산화’에 총력(연합뉴스)	
	北 연말 만리마선구자대회 예정…강원도정신 배우자(연합뉴스)	
1.27	北 무수단 발사-SLBM 수중사출 ‘성공영상’ 첫공개(연합뉴스)	
경제	1.24	中, 12월 대북 석탄수입 일시중단 조치에도 수입량 늘어(연합뉴스)
		몽골 정유회사, 북한기업과 교류 ‘영구중단’(연합뉴스)
	1.26	北 기업 자율경영 확대 방침…자본주의 요소 적용(연합뉴스) 北 지난해 中서 쌀 4만2천톤 수입…24배 증가(연합뉴스)
사회 문화	1.24	北 장마당서 보안원에 샅대질하는 당찬 이춤 늘어(연합뉴스)
	1.25	北 주민폭로회서 망신주기식 인민재판 강화(연합뉴스)
외교 국방	1.21	트럼프 美정부, 北-이란 미사일공격 대비 첨단방어시스템 개발(연합뉴스)

1.22	北 고속도로에 시설물 다수 포착...활주로 전용 목적(연합뉴스)
	NHK “北 신형 ICBM 평양 북쪽에 배치...트럼프 취임식 전 이동”(연합뉴스)
1.23	티키동부 쿠르드계 무장조직 은신처서 북한 무기 발견(연합뉴스)
1.24	北 美 ‘침단MD 개발’에 “위협은 우리가 받고 있다”(연합뉴스)
	日방위성 통신위성 첫 발사성공...자위대 내 北정보 공유 목적(연합뉴스)
	탄자니아 종합병원 의사 부족해 북한서 영입 예정(연합뉴스)
	말레이시아, 北고려항공 입항·영공통과 금지 시행중(연합뉴스)
1.25	美 오바마 퇴임 직전 또 대북금융거래 주의보(연합뉴스)
	北 “美 우리 핵주먹 안에...멸망이나 공존이나 선택해야”(연합뉴스)
	北, 러시아 집권당 통해 극동지역과 협력강화 추진(연합뉴스)
	북한, 부패국가 세계 3위...포폴리스트·독재자, 부패 악화시켜(연합뉴스)
1.26	美태평양육군사령관, 북핵위협은 ‘블랙스완’...가장 큰 걱정거리(연합뉴스)
	최광일 北 미주 부국장 “언제, 어디서든 ICBM 시험발사 가능”(연합뉴스)
	北, 美에 “핵 위협 계속하면 선제공격능력 강화” 위협(연합뉴스)
	中 “대북 수출금지품목 추가, 北 도발대비 사전조치는 아냐”(연합뉴스)
	日, 北미사일 대비 주민대피 훈련 3월 초 아키타서 실시(연합뉴스)
	日아베, 北핵미사일 대비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검토(연합뉴스)
	러시아 정부, 北에 ICBM 발사 등 도발 자제 당부(연합뉴스)
1.27	北, 日 통신위성 발사에 “美 이중잣대” 비난(연합뉴스)
	北매체, 은근한 中비판...“자위적 조치 비난 말라”(연합뉴스)
	北 국적자 37명 유엔산하 10개 국제기구에 진출(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1.22	오중흡7연대 칭호 수여받은 제 1314군부대 공개활동	황병서, 리영길	
1.23	故 강기섭 빈소 방문	황병서, 최룡해, 리명수, 박영식, 김용수, 조용원	
1.26	려명거리 건설장 방문	오수용, 조용원, 마원춘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 22.

■ 北김정은, 또 軍부대 시찰...훈련열풍 일으켜야(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들어 두 번째군(軍)부대 시찰에 나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31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고 보도함.
- 김정은은 이곳 야외훈련장을 돌아본 뒤 “사상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 적들과의 대결은 불과 불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면서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짝 들어찬 군인들의 정치사상적 우세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적들을 타승하여야(처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시찰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등이 수행함.

2017. 1. 23.

■ 김정은, 민용항공총국장 사망에 직접 빈소 찾아 조의(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강기섭 민용항공총국 총국장의 빈소를 직접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며 민용항공총국 총국장인 강기섭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월 22일 고인의 영구(시신을 담은 관)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고 밝힘.
-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명수 군 총참모장, 김용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조문에 동행함.

2017. 1. 26.

■ 김정은, 여명거리 건설현장 시찰...태양절까지 무조건 완공(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 여명거리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까지 건설을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여명거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태양절 전으로 여명거리 건설을 기어이 끝냄으로써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할 것을 건설에 동원된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시였다”고 밝힘.
- 김정은의 이날 시찰은 오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 23.

- **北, ‘삼수’ 끝에 독일 주재 대사 박남영 임명(연합뉴스)**
 - 북한이 우여곡절 끝에 독일 주재 대사에 박남영을 임명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도이쾰란드련 방공화국(독일)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박남영이 임명되였다”고 짧게 보도함.
 - 중앙통신은 박남영의 이력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았음.
- **北 올림픽위원장 리종무에서 김일국으로 교체(연합뉴스)**
 - 북한이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리종무에서 김일국으로 교체한 사실이 23일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2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며 “총회에서 김일국 체육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고 짚막하게 전함.
 - 김일국은 지난해 3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작 발표 1돌 기념 체육 부문 연구 토론회를 소개하는 북한 매체 기사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으로 소개됐고, 그해 12월 내각 체육상(장관급)으로 임명됨.

2017. 1. 24.

- **김정은 어록 관리 총책은 조용원 부부장(연합뉴스)**
 - 북한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를 '어록'으로 관리하는 총책은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고위 소식통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현지지도(시찰)를 마치

고 떠나면 그가 한 말들은 김여정(김정은 여동생)을 통해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에게 총집합된다”고 전함. 소식통에 따르면 통상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록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짐.

- 익명을 요구한 북한 고위직 출신의 한 탈북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용원은
지방 당의 낮은 직책에서 노동당 부부장까지 고속 승진으로 출세했다”며 “달변가로
처세술이 뛰어난 부분이 김정은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2017. 1. 25.

■ 北강기섭 민용항공총국장 장례식 열려…김정은 불참(연합뉴스)

- 북한 강기섭 민용항공총국장의 장례식이 24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25일 보도함.
- 장례식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고인의 유가족 등이 참석함. 지난 22일
빈소를 방문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음.
- 북한 매체들은 강기섭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별도로 보도하지 않았으나 김정은이
빈소를 직접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사망 사실이 알려짐.
북한 매체들은 “강기섭 동지가 뜻밖에 사망했다”고 알렸을 뿐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北 작곡가 구승해 폐렴으로 사망(연합뉴스)

- 북한 작곡가 구승해가 24일 오전 9시 폐렴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으로 7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함.
- 1937년 7월21일 황해북도 봉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수령님이 계시여 행복합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우리는 당의 군대’, ‘인민의 세상’ 등 가요 여러 곡과 ‘수령님
은덕일세’, ‘신아우’ 등 전자음악작품 수십 편을 창작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구승해 동지는 한생을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수많은 명곡창작으로, 우리 당사상사업과 주체음악예술발전에 커다란 기여
를 한 재능있는 창작가”라고 추모함.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1. 21.

■ 대북매체 “北, 20일 전군에 ‘전투동원태세’ 명령”(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지난 20일 전군(軍)에 ‘전투동원태세’ 돌입을 명령했다는 대북 매체의 보도가 나왔음.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 “오늘(20일) 낮 12시(정오)부터 전투동원태세에 들어간다는 인민무력성 명령이 모든 인민군 부대들에 하달됐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통상 전투동원태세 발령의 주체는 최고사령관인데 이번에는 인민무력성 이어서 군 지휘관들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이번 명령은 성격상 인민군과 교도대에 한정돼 수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국산화’ 강조에 토종 만화캐릭터 활성화(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산화를 강조하고 나서자 자국산 만화캐릭터 사용 활성화에도 발 벗고 나선 모습임.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조선은 또다시 질풍처럼 달린다’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평양가방공장이 생산한 가방에 ‘소년장수’, ‘령리한(영리한) 너구리’ 등 만화캐릭터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전함.
- 김정은은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육성 신년사를 통해 ‘국산화’를 강조해오고 있음.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산화를 외치면서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 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함.

2017. 1. 22.

■ 北, 김정일 생일 기념행사 준비 시동…경축 분위기 조성(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번째 생일(2월 16일·광명성절)을 축하하기 위한 각종 국내외 행사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독일에서 김정일 생일을 경축하기 위한 위원회가 결성돼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를 조직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이를 통해 고조시킨 ‘김씨 3부자 우상화’ 분위기는 8월 열리는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임.

2017. 1. 26.

■ 北, 김정은 신년사 지시 따라 '국산화'에 총력(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지시에 따라 수입산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난 1일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이후 북한 매체에는 거의 매일 생산현장의 국산화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나 국산화를 독려하는 글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27일 파악됨.
-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최근 들어 농구경기복, 열차 베어링, 양어용 수중 산소 주입 시스템, 디지털 발전기 종합보호장치 등 다양한 제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2017. 1. 27.

■ 北, 무수단 발사·SLBM 수중시출 '성공영상' 첫공개(연합뉴스)

- 북한은 작년 6월 22일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의 시험발사에서 일부 성공한 영상을 약 반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위대한 영도 민족사적 대승리-2016년의 영웅적인 투쟁사를 전한다'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하고 있음.
- 영상에는 무수단 미사일이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수직으로 솟구치는 장면,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하는 장면, 김정은이 간부들과 함께 참관하는 모습, 김정은이 울먹이는 리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끌어안는 모습, 병사들이 시험발사 성공에 환호하는 모습 등이 포함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1. 21.

■ 눈오나 비오나 인민사랑...北, 김정은 애민 이미지 구축 주력(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인민의 참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한 이후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스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렬한 인민 사랑의 열과 정으로 심장을 끓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김정은의 애민정치를 강조함.
-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17일 기록영화를 통해 김정은이 원산 구두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공개했고, 평양출판사는 지난해 발간한 공개활동 화보집을 통해 김정은의 애민 면모를 선전한 바 있음.

2017. 1. 22.

■ 北매체 “트럼프美대통령 취임” 짧게 보도(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실을 22일 짧막하게 보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20일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며 “이날 대통령 취임식이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함.
- 신문은 그러나 취임 사실 외에 별다른 논평이나 해설은 내놓지 않았음.

2017. 1. 23.

■ 北, 푸에블로호 사건 49주년 맞아 美에 “교훈 새겨야”(연합뉴스)

- 북한은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발생 49주년인 23일 미국을 향해 “수치스러운 교훈을 되새기라”며 으름장을 놓았음.
- 북한의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오늘 우리 공화국에는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이 매체는 이어 “조선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들쭉거리온 미제국주의라는 악의 총본산을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그런 힘이 있다”고 강조함.

■ 北, 자체제작 만화영화 ‘고주몽’ 선전…민족분열 끝내야(연합뉴스)

- 북한이 자체 제작한 역사 만화영화 ‘고주몽’을 통해 민족분열과 동족대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선전함.
-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23일 “요즘 TV로 방영되는 새로 나온 다부작 역사 만화영화 ‘고주몽’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소개함.
- 매체는 또 “민족분열과 동족대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기를 열렬히

기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 누구나 꼭 보아야 할 좋은 영화"라며 "애국애족의 더운 피를 끊게 하여주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누구나 최고의 애국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복잡해진 국제정세에 “자주적 대외정책 견지”(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복잡해진 국제정세에 “자주적인 대외정책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겠다”고 밝힘.
- 北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비상이 높아졌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외관계는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있는 대외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 관계 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적인 대외정책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신문, 위험천만한 작업현장 전하며 ‘충성’ 독려(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위험천만한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실상을 선전에 동원하며 주민들의 ‘충성’을 독려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불굴의 정신력, 그것은 사무치는 그리움의 분출이었대’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원산군민발전소의 임시물막이 구조물 해체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위험한 수중 작업 실태를 상세히 보도함.
-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10일에도 흑한기의 수중 작업 등 ‘극기훈련’ 수준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공사현장을 ‘모범사례’로 소개한 바 있음.

2017. 1. 24.

■ 北 노동신문, 우리 ICBM 요격 시도는 곧 전쟁(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요격 방침에 대해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겉에 질린 폰수 없는 자들의 발광증’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로켓·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호박잎으로 우박을 막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우리와 미국은 교전 관계에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

트에 대한 요격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펴.

2017. 1. 26.

■ **北, 연말 만리마선구자대회 예정…강원도정신 배우자(연합뉴스)**

- 북한이 “강원도정신”을 김정은 시대의 핵심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우기 위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올해 말 평양에서 소집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26일 보도함.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만리마선구자대회에는 특출한 성과와 혁혁한 위훈을 창조한 만리마기수들(우수 성과자)이 참가하여 만리마속도창조대회에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들을 교환하고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토의하게 된다”고 설명함.
- 보도문은 특히 “강원도정신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진 시련 속에서도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자체의 힘으로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조선혁명가들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영웅적 기상이 응축된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7. 1. 26.

■ **北, 기업 자율경영 확대 방침…자본주의 요소 적용(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기업 운영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적용하는 ‘자율경영’을 올해부터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평양을 자주 드나드는 중국 기업인은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기업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 생산 증대를 꾀할 것이라고 RFA에 주장함.
- 한 소식통은 “운영자금을 기업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하거나 자본주의 방식대로 기업을 공개(주식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라는 말

인데 북한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1. 24.

■ 中, 12월 대북 석탄수입 일시중단 조치에도 수입량 늘어(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해 말 북한산 석탄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지난달 북한산 석탄수입이 200만에 이르러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3일 중국의 세관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입물량은 11월의 190만보다 많은 것으로, 월간 수입량으론 지난해 4월 이래 최대임.
- 중국의 대북 석탄수입은 지난해 전체적으론 2천250만에 달해 그 이전 해보다 14.5% 증가함.

■ 몽골 정유회사, 북한기업과 교류 ‘영구중단’(연합뉴스)

- 몽골 정유회사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철회하기로 함.
- 몽골 HB오일은 24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조선석유개발회사(KOEC)와 모든 직간접적인 교류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힘. 지난해 6월 잠정중단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조치임.
- 이는 조선석유개발회사가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음.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초 단체 16개와 개인 7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하면서 제재 명단에 조선석유개발회사를 포함함.

2017. 1. 26.

■ 北, 지난해 中서 쌀 4만2천톤 수입…2.4배 증가(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4만2천톤의 쌀을 수입해 전년보다 2.4배 증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해 1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총 4만2천t, 미화 2천500만 달러(289억 원 상당)어치의 쌀을 수입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방송에 따르면 권태진 원장은 “전년도 쌀 수입량보다 2.4배 증가한 규모”라면서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곡물량은 5만4천700여t으로 2015년에 비해 11.4% 증가했다”고 설명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1. 25.

- **北, 주민폭로회서 망신주기식 인민재판 강화(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 통제수단으로 ‘주민총회’와 ‘주민폭로회’ 같은 인민재판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이) 인민재판 놀음인 주민총회를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일상적으로 벌여놓고 있다”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주민폭로회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고 전함.
 - 주민총회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대중의 공개비판으로 노동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 처벌을 가하는 방식이지만, 주민폭로회는 처벌이 애매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는 형식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1. 24.

- **北 장미당서 보안원에 싯대질하는 당찬 이춤 늘어(연합뉴스)**

- 북한에서 관료들의 횡포에 저항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4일 보도함.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의 한 소식통은 “요즘엔 장마당에서 보안원이나 시장 단속원에게 샅대질하며 대드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이럴 땐 주변 사람들도 합세해서 단속원을 몰아붙인다”고 말했다고 RFA는 밝힘.
- 이 소식통은 “이런 모습은 몇 년 전만 해도 보기 어려웠던 광경”이라면서 “이제는 조선(북한) 사람들도 (관료들에) 무조건 숙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임.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 21.

■ 트럼프 행정부, 北-이란 미사일공격 대비 첨단방어시스템 개발(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과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함.
-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주요 정책 기조 가운데 ‘우리의 군대를 다시 강하게’(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분야를 통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계획을 공개함.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인 2일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힘.

2017. 1. 24.

■ 北, 美 ‘첨단MD 개발’에 “위협은 우리가 받고 있다”(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요격 방침에 대해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음.
-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위협은 우리가 받고 있다”며 첫 반응을 내놨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겉에 질린 폰수 없는 자들의 발광증’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로켓·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호박잎으로 우박을 막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함.

2017. 1. 25.

■ 美, 오바마 퇴임 직전 또 대북금융거래 주의보(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직전 자국 금융기관에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또 발령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또다시 내렸다고 RFA는 전함.
- 북한은 2011년부터 6년 연속 FATF의 대응조치 필요 국가 명단에 이름이 올랐음. 미국 금융범죄단속반은 이에 맞춰 1년에 2~3차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음.

■ 北 “美, 우리 핵주먹 안에…멸망이나 공존이나 선택해야”(연합뉴스)

-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되풀이하며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동반한 ‘말폭탄’을 던지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자 신문 6면에 ‘미국은 오바마의 대조선정책 파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미국은 이제라도 대담하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은 ‘낙제·파산’이라며 새 정부의 조속한 정책 전환을 압박함.

2017. 1. 26.

■ 美태평양육군사령관, 북핵위협은 ‘블랙스완’…가장 큰 걱정거리(연합뉴스)

-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블랙스완’(검은 백조·Black Swan)에 비유하면서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함.
-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2017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힘.
-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제재는 엄청난 것이고 사람들이 다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함.

■ **최광일 北 미주 부국장 “언제, 어디서든 ICBM 시험발사 가능”(연합뉴스)**

- 최광일 북한 외무성 미주 부국장은 25일(현지시간)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가능하다”고 말함.
- 최 부국장은 이날 평양에서 미국 NBC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방어적 성격’(defensive in nature) 차원에서 핵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밝혔고, 이후 북한 관영·선전 매체들은 최고 수뇌부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ICBM이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머지않아 발사되게 될 것이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여왔음.

■ **北, 美에 “핵 위협 계속하면 선제공격능력 강화” 위협(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핵 무력 중심의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함.
-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공개한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년례적(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건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공식반응으로 미국을 향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됨.

2017. 1. 27.

■ **北, 日 통신위성 발사에 “美 이중잣대”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일본의 독자 방위통신위성 발사 성공을 언급하며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강력한 힘의 보유는 자주권 수호의 진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지난 24일 발사에 성공한 ‘기라메키’를 언급하며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까지도 한사코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며 제재를 떠들어온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일본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병어리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이중적인 자대(잣대)에 따라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 발사권리의 행사도 불법, 도발로 매도되지만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명백한 군사적 목적의 위성까지도 아무런 제한 없이 무사 통과되고 있는 것이 국제무대에서 상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함.

나. 북·중 관계

2017. 1. 26.

■ 中 “대북 수출금지품목 추가, 北 도발대비 사전조치는 아냐”(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21호 결의에 따른 이행 조치로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한 이유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공고를 발표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또 중국 법률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고, 추가된 리스트는 모두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힘.
- 화춘잉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춘제(春節·중국 설)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사전 조치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이 명절을 앞두고 도발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프로세스에 따라 이뤄진다”고 선을 그었음.

2017. 1. 27.

■ 北매체, 은근한 中비판…“자위적 조치 비난 말라”(연합뉴스)

- 북한 관영 매체가 자신들의 핵·미사일 도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중국을 비난하는 듯한 언급을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음.
-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즈음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강화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과도 ‘소리 없는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세력권 확보를 위한 지역 열강들의 패권다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중국 군용기가 이달 9일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 해협’) 상공을 통과해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발진한 사건을 거론함.

다. 북·일 관계

2017. 1. 24.

■ **日방위성 통신위성 첫 발사성공·자위대 내 北정보 공유 목적(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이 24일 부대 간 정보공유 등에 활용할 독자 방위통신위성을 발사함.
- NHK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오후 4시 44분께 가고시마(鹿兒島) 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을 통해 X밴드 방위통신위성 ‘기라메키’를 쏘아 올렸음.
- 새 위성은 특히 고속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 전달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부대의 동영상 전달 등에 활용하게 됨.

2017. 1. 26.

■ **日, 北미사일 대비 주민대피 훈련 3월 초 아키타서 실시(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피 훈련을 혼슈(本州) 북부 아키타(秋田)현에서 오는 3월 실시하기로 했다고 NHK가 26일 보도함.
- 아키타현은 동해에 인접해 북한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임. 지난 9월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아키타현 오가(男鹿)반도 앞쪽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바 있음.
- 3월17일 오가 반도가 속한 오가시(市)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에서는 내각관방, 총무성 소방청, 아키타현 등이 참가해 탄도미사일의 일부가 일본 내에 떨어진다는 가정 하에 대응 태세를 점검할 예정임.

■ **日아베, 北핵미사일 대비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검토(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핵미사일이 배치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상대국 기지 등을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함.
- 일본 자위대는 현재 타국 미사일을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

라. 북·러 관계

2017. 1. 25.

■ **北, 러시아 집권당 통해 극동지역과 협력강화 추진(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 집권당의 연해주 지부에 ‘당(黨) 대 당(黨)’ 협력을 제안하는 등 러시아

- 극동지역과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러시아 극동지역 매체인 프리마메디이는 림청일 북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지난 11일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발렌틴 슈마토프 연해주지역위원장을 예방했다고 전함.
 - 북한이 러시아 집권당과의 협력을 고리로 삼아 경제협력 거점인 연해주 등 극동지역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2017. 1. 26.

■ 러시아 정부, 北에 ICBM 발사 등 도발 자제 당부(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차관이 최근 주러 북한 대사와의 면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의 긴장 고조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북한 측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짐.
- 모스크바 주재 외교소식통은 26일(현지시간)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 24일 새해를 맞아 외무부를 예방한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와의 면담하면서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 긴장 고조 행위가 관련국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게 없다면서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모르굴로프 차관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긴장 고조와 대북 제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 23.

■ 터키동부 쿠르드계 무장조직 은신처서 북한 무기 발견(연합뉴스)

- 터키 동부 국경지방 쿠르드계 무장조직 은신처에서 북한산 무기가 발견됐다고 터키 언론이 보도함. 23일 뉴스포털 하베를레르 등 터키 매체에 따르면 터키경찰은 동부 하카리주(州) 추쿠르자에 있는 ‘테러조직’ 은신처에서 무기와 생활용품을 발견, 압류함. 테러조직은 쿠르드계 무장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를 가리킴.
- 터키경찰은 PKK 은신처를 급습해 다양한 휴대용 무기와 폭발물, 침낭과 식품류를 발견함. 이 가운데 북한산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HT-16PGI가 포함됨. 쿠르드계 무장조직이 어떤 경로로 북한산 무기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그간 중동의 무장조직에 북한 무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시리아 극단주의조직들도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있었음.

2017. 1. 24.

■ 탄자니아 종합병원, 의사 부족해 북한서 영입 예정(연합뉴스)

- 오는 6월 문을 열 예정인 탄자니아 내 종합병원이 의사가 부족해 북한에서 데려올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내 우간다사립대학 캄팔라국제대학의 분교는 1천 개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오는 6월 개원할 예정임.
- 하지만 규모에 비해 현지 의사가 모자라 병원 측은 북한과 파키스탄, 쿠바 등 해외에서 의사를 영입한다는 계획임. 북한 의사는 내과와 외과, 소아과, 방사능과 등에 걸쳐 3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짐.

■ 말레이시아, 北고려항공 입항·영공통과 금지 시행중(연합뉴스)

- 말레이시아가 북한 항공기의 자국 착륙과 영공통과를 금지하고 있다고 유엔에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지난해 8월 유엔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됨.
-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는 “북한 항공기에 말레이시아 이·착륙 및 영공통과에 대한 어떤 허가든 거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항공 당국을 통해 취했다”고 밝힘.

2017. 1. 25.

■ 북한, 부패국가 세계 3위...포퓰리스트·독재자, 부패 악화시켜(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3위를 차지함.
-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6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CPI)에서 북한이 12점을 받아 176개국 중 174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함.
- 북한 뒤에는 11점을 받은 남수단(175위)과 10점을 받은 소말리아(176위) 등 오직 두 국가만이 자리함.

2017. 1. 27.

■ 北 국적자 37명 유엔 산하 10개 국제기구에 진출(연합뉴스)

- 북한 국적자 37명이 유엔 산하 10개의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방송은 지난해 말 발표된 유엔 고위경영위원회(HLCM) ‘인력통계’를 분석한 결과, 유엔개발계획(UNDP)에 12명을 비롯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1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4명, 세계보건기구(WHO) 3명, 유네스코 2명, 사무국과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식량농업기구(FAO) 등에 1명씩의 북한 국적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힘.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1. 22.

■ 北 고속도로에 시설물 다수 포착…활주로 전용 목적(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유사시 주요 고속도로를 전투기 활주로로 전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다수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RFA는 미국 상업위성이 지난해 10월 4일 촬영한 평양-묘향산 고속도로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고속도로 11곳에 비행기와 차량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함.
- 평양-개성 고속도로에도 최소 3곳에 비슷한 시설물이 지어지고 있었음.

■ NHK “北, 신형 ICBM 평양 북쪽에 배치…트럼프 취임식 전 이동”(연합뉴스)

- 북한이 새 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기를 수도 평양의 북쪽에 배치했다고 NHK가 22일 보도함.
- NHK는 한국군 관계자를 인용해 신형 ICBM 2기가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평양의 북쪽에 배치된 상태라며 21일 새벽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전에 북한이 신형 ICBM으로 보이는 2기의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해 이동시킨 것을 한국군과 미군이 확인했다고 전함.
- 한국군 관계자는 신형 ICBM에 대해 “2단식 미사일은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과 닮았다”며 “1단제의 형태가 (무수단과) 달라 새로 개발된 엔진을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1	軍 “北 도발징후 없어”...한미일 이틀째 北미사일 추적훈련(연합뉴스) 외교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강화 의지 표명 환영(연합뉴스)	
	1.22	한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북핵 6자수석대표 회동 추진(연합뉴스)	
	1.24	적진에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하라...한미연합훈련(연합뉴스) 해군2함대, 미 육군과 서해서 해상기동훈련(연합뉴스)	
	1.25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회담 내달 초 서울 개최 협의 중”(연합뉴스)	
	1.26		美국방 첫 순방지 韓선택...동맹강화-북핵시급성 인식...방위비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한중 관계	1.23	중국 ‘사드 보복’ 클레식까지 퍼지나... 정부, 예의 주시(연합뉴스)	
	1.25	당국자, ‘中 사드 보복’에 국제법적 대응 검토(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24	한중일 역내갈등 와중에도 ‘중남미국장회의’ 열어(연합뉴스)	
	1.25	한미일, 내달 초 3국 6자회담 수석 회동 추진(연합뉴스) 한일중 정상회의 2월 개최도 사실상 무산(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22		中매체,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만한 파트너 없을 것(연합뉴스)
	1.23		시진핑, 트럼프에 축전...中외교부, 서로 핵심이익 존중해야(연합뉴스)
	1.24		中, 트럼프 TPP 탈퇴서명에 '표정관리'...에서 신중한 반응(연합뉴스)
			中 관영 매체, 美 다시 위대해지려면 중국과 상생 협력해야(연합뉴스)
	1.25		中언론 "美TPP 탈퇴 후 무역마찰, 양국에 손해"...연일 유화기조(연합뉴스)
	1.26		발등에 불 中 "美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은 비논리적" 반박(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21		日 아베 "日美동맹 세계에 알리고 싶다" 축전(연합뉴스)
			日, 트럼프 'TPP 탈퇴' 비상...통상정책 재검토 불가피(연합뉴스)
	1.22		트럼프 구에 집중하는 日... 中갈등 센 카쿠 美방위위무 확인할 것(연합뉴스)
	1.23		트럼프 정상회담 순위 밀린 日 '전전공공'...일각선 우려(연합뉴스)
	1.24		日 어찌나...트럼프의 TPP 탈퇴·나프타 재협상 행보에 당황(연합뉴스)
			아베, 미일 정상회담서 '美제일주의 존중' 의사 전달할 듯(연합뉴스)
1.26	美트럼프-日아베 정상회담, 다음달 10일 개최 예정(연합뉴스)		

	1.27		日아베, 美와 자유무역협정·경제연대 협정도 검토(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25	美 전략장찰기, 러시아 서부 국경 근접해 정찰 비행(연합뉴스)	러 외무, 美와 급격한 관계개선 환상 안 갖고 있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22	中 해경선 영유권분쟁 센카쿠 또 진입...日 “영해 침입” 항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26	러일 영유권 분쟁섬 ‘공동경제활동’ 협의 내주 개시(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 21.

- **軍 “北, 도발징후 없어”…한미일, 이틀째 北미사일 추적훈련(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현지시간 20일)에 맞춰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한이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1일 “북한의 군사 동향에서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도 없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북한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외교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강화 의지 표명 환영(연합뉴스)**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더불어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맹 강화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등에 대해 이같이 논평함.
 -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2017. 1. 22.

- **한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북핵 6자수석대표 회동 추진(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추진 중임.
 - 2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을 위해 미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미측 역시 조기 회동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설 연휴(27~29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첫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7. 1. 24.

■ **적진에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하라..한미연합훈련(연합뉴스)**

- 유사시 적진에 고립된 조종사 구출 능력 향상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고 공군이 24일 밝혔다.
-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공중기동사)와 미 7공군사령부 간에 ‘퍼시픽 선더’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훈련은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강원도 산간지역 등 동부 공역 일대에서 실시됨.
- 퍼시픽 선더 훈련은 임무 수행 중 조난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능력을 향상하고자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임. 2008년부터 미군 단독으로 진행하던 퍼시픽 선더 훈련은 2010년부터 한미연합 훈련으로 확대됨.

■ **해군2함대, 미 육군과 서해서 해상기동훈련(연합뉴스)**

- 해군 2함대사령부는 24일 서해에서 미 육군 2사단 공격헬기 부대와 함께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함.
- 이번 훈련은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해 서북도서 및 서해안 등으로 침투하는 세력을 격멸하기 위한 것으로, 해군 2함대 소속 400t급 유도탄고속함(PKG), 150t급 고속정(PKM), 공기부양정(LSF), 해경 공기부양정 등 수상함 5척이 참가함.
- 이날 훈련을 지휘한 이재남 23전투전대장(대령)은 “한미 연합군은 적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적 도발 시 압도적인 연합전력으로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영해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2017. 1. 25.

■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회담 내달 초 서울 개최 협의 중”(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내달 서울에서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 당국자는 25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내달 초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 매티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간 장관급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큼.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에 외교장관 회담보다 국방장관 회담이

먼저 열리는 것도 이례적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함.

2017. 1. 26.

■ **미국방 첫 순방지 韓선택...동맹강화 북핵시급성 인식...방위비는?(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새 행정부의 국방장관이 다음 달 1~4일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오를 예정임.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료 가운데서도 첫 외국 출장임.
- 이처럼 매티스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그것도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키로 한 것은 군사·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외교 소식통은 “매티스 장관의 예상보다 빠른 한일 방문, 특히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은 새 정부가 동맹강화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여러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나. 한·중 관계

2017. 1. 23.

■ **중국 ‘사드 보복’ 클래식까지 퍼지나...정부, 예의 주시(연합뉴스)**

-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의 중국 공연이 잇달아 취소 위기에 놓이자 한국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나섬.
- 중국은 이미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롯데그룹 세무 조사,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규제, 한국행 전세기 불허 등의 한한령(限韓令) 조치로 압박하고 있는데 이제는 순수 예술 분야까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임.
-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조수미씨와 백건우씨의 중국 공연 지연 또는 취소 사태와 관련해 사드 관련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2017. 1. 25.

■ **당국자, ‘中 사드 보복’에 국제법적 대응 검토(연합뉴스)**

-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문화·경제 관련 보복성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포함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밝힘.
- 당국자는 ‘사드 보복’과 관련한 대응에 언급, “여러 유관부처와 협력 하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검토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 외교부 당국자는 또 “사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중국 측 조치에 대한 대응도 관계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임.

다. 한·일 관계

2017. 1. 24.

■ 한중일, 역내갈등 외중에도 ‘중남미국장회의’ 열어(연합뉴스)

-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으로 역내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이 모여 대(對)중남미 외교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외교부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0차 한일중 외교부 중남미국장 회의와 제14차 한-중, 한-일 중남미국장 회의가 열린다고 24일 밝힘.
- 회의에는 우리 측 임기모 중남미국장과 일본 측 다카세 야스시 외무성 중남미국장, 중국 측 주 칭차오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임. 임 국장은 일본 측 대표와 함께 왕차오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예방할 예정임.

2017. 1. 25.

■ 한미일, 내달 초 3국 6자회담 수석 회동 추진(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르면 내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짐.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은 미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삼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2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임.
- 회동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임.

■ 한일중 정상회의 2월 개최도 사실상 무산(연합뉴스)

-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작년 12월에서 1차 연기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월 중에도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밝혔다.
- 이 당국자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2월경 추진을 목표로 해서 일정 조율을 했으나 조율이 사실상 어렵게 됐고 회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2월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당국자는 “의장국(일본)을 중심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3국 정상회의를 개최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도 되도록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 22.

■中美제,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만한 파트너 없을 것(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들은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 간의 협력이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함.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과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자 미·중 무역 전쟁 시 미국이 얻을 게 없으며 오히려 13억 명의 거대 시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함.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련 논평에서 요령 있는 사업가이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중미 관계의 이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2017. 1. 23.

■ 시진핑, 트럼프에 축전…中外교부, 서로 핵심이익 존중해야(연합뉴스)

- 최근 무역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중국 반응에 대한 질문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통해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음.

2017. 1. 24.

- **中, 트럼프 TPP 탈퇴서명에 ‘표정관리’…애써 신중한 반응(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하자 중국은 애써 표정 관리하는 기색이 역력함.
 - 그동안 버락 오바마 전 미행정부의 중국을 배제한 TPP 드라이브에 강하게 반발해온 중국은 정작 트럼프 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TPP 탈퇴를 선언한데 대해선 반기는 표정을 짓지 않으려는 모양새임.
 -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언론매체들은 24일 “미국의 무역정책이 급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추이에 주목함.
- **中 관영 매체, 美 다시 위대해지려면 중국과 상생 협력해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뒤로 양안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인 중에 중국이 두 국가 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먼저 손을 내미는 चे스처를 취함.
 - 중국 관영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23일 ‘중미 상생협력이 정도(正道)다라는 논평에서 “중국과 미국이 상생 협력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트럼프 선거 구호를 인용해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논평을 쓴 천전카이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가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지 사람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는 넓고, 미국도 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함.

2017. 1. 25.

- **中언론 “美TPP 탈퇴 후 무역마찰, 양국에 손해”…연일 유화기조(연합뉴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중국 역할이 커진 가운데 중국 매체들이 이런 상황이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음.

- 중국 관영 환구망(環球網)은 사설을 통해 “미국은 TPP 탈퇴 이후 양자 간 무역협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자 간 경제무역문제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무역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25일 보도함.
-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을 향해 보호무역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줄곧 강조한 터라 중국이 표정관리 속에 일단 조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됨.

2017. 1. 26.

■ 발등에 불 中 “美的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은 비논리적” 반박(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에 중국 인민은행이 ‘미국 내 지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논리적 처사’라고 반박하며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기관지인 인민정협보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위협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밝힘.
- 정협 위원이기도 한 이 부행장은 “인민은행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7. 1. 21.

■ 日 아베 “日美동맹 세계에 알리고 싶다” 축전(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세계를 향해 알리고 싶다”며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함.
- 아베 총리는 축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근원이지만, 안전보장 환경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함께 손을 잡고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고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 맞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미일) 동맹이 수행할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동맹의 인연을 한층 강화해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日, 트럼프 ‘TPP 탈퇴’ 비상…통상정책 재검토 불가피(연합뉴스)

- 일본 정치권과 경제계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환태평양경제동

- 반자협정(TPP) 탈퇴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비상이 걸린 분위기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TPP 발표를 통해 탄생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공동경제권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이런 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임.
 - 일본은 일단 트럼프 정권을 상대로 TPP 이탈 방침을 철회하도록 다각적으로 설득할 방침임.

2017. 1. 22.

■ 트럼프 구애 집중하는 日… 中갈등 센카쿠 美방위의무 확인할 것(연합뉴스)

-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일본이 정상회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양국 당국자 간 안보 협력을 확인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2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후지TV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주요국 중에서도 빠른 단계에서 추진하고 싶다”고 말함.
- 그는 “정상회담에서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에 의한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과 자세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함.

2017. 1. 23.

■ 트럼프 정상회담 순위 밀린 日 ‘전전궁궁’…일각선 우려(연합뉴스)

-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국가라는 '타이틀'을 노렸다가 무산되자 전전궁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작년 12월 초 미일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이달 27일을 전후해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 나왔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상대로 영국(26~27일)을 선택했기 때문임.
-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초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귀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서 우선 순위에서 캐나다에도 밀릴 가능성이 큼.

2017. 1. 24.

■ 日 어쩌나…트럼프의 TPP 탈퇴·나프타 재협상 행보에 당황(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자 일본이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 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도 공식화하고 일본을 지목하며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강화하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함.
- 사히신문은 24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TPP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TPP 탈퇴가 현실화하자 앞일을 예측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고 전함.

■ **아베, 미일 정상회담서 '美제일주의 존중' 의사 전달할 듯(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초 일본 정부가 개최를 추진 중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미국 제일주의'의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은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의향을 굳혔다고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이념을 평가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미일 동맹의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임.

2017. 1. 26.

■ **美트럼프-아베 정상회담, 다음달 10일 개최 예정(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함.
- 신문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해 정식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전함.
- 정상회담에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과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이 다음 달 초 예정됨. 일본 측은 이런 잇단 회담이 양국 간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017. 1. 27.

■ **아베, 美와 자유무역협정-경제연대협정도 검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한

-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과 양자 간 무역협상 추진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양자 무역협상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27일 보도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일 간에 어떤 경제협력 관계가 좋은가를 지켜보면서 의논해 갈 것”이라고 말함.

다. 미·러 관계

2017. 1. 25.

■ 러 외무, 美와 급격한 관계개선 환상 안 갖고 있어(연합뉴스)

- 러시아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으로 긴장 상황에 있는 미-러 관계가 급격히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밝힘.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하원 대정부 질의 회의에 출석해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러 관계 전망을 설명하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새로운 ‘관계 재설정’(Reset·화해)이 있을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
- 그는 “어떤 순진한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달인이라는 걸 알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할 줄 안다”고 강조함.

■ 美 전략정찰기, 러시아 서부 국경 근접해 정찰 비행(연합뉴스)

- 미군 정찰기가 러시아 북서부 레닌그라드주(州)와 서부 칼리닌그라드주 인근 국경에 근접해 정찰 비행을 벌였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함.
- 통신은 군용기 이동을 추적하는 서방 사이트 자료를 인용해 영국 밀덴홀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 공군 전략정찰기 RC-135W 1대가 발트3국의 하나인 에스토니아 탈린을 오가는 10시간에 걸친 정찰 비행 중 러시아 서부 지역 국경에 아주 가까이 근접해 정찰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함. 정확한 비행 시간은 언급하지 않았음.
- 정찰기는 발트해 상공에서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칼리닌그라드주 해안을 따라 비행했으며, 비행자료에 따르면 해안에서 약 75km 떨어진 지점의 9천200m 상공을 운항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통신은 설명함.

라. 중·일 관계

2017. 1. 22.

■ 中 해경선 영유권분쟁 센카쿠 또 진입...日 “영해 침입” 항의(연합뉴스)

- 22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중일 간 영유권분쟁 수역에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진입해 일본 측이 중국에 항의함.
-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경2308, 2501, 2302호 등 3척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잇따라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구바시마(久場島) 주변 수역으로 들어온 것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확인됨.
- 이들 선박은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해당 수역 주변을 항해하고 있으며 해상보안청은 “일본 영해에서 나가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NHK가 전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7. 1. 26.

■ 러일, 영유권 분쟁섬 ‘공동경제활동’ 협의 내주 개시(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 경제활동과 관련, 이르면 다음 주 협의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은 26일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양국 정부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외무 차관급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함.
- 양국 정부는 쿠릴 4개 섬을 둘러싼 법적 입장을 서로 손상하지 않는 특별한 제도 마련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신은 전함.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25	유엔 아동권리위, 다음 달 초 북한 아동인권 실태 심의(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1.23	黃권한대행 “北 이산가족 생사확인 요구에 호응해야”(연합뉴스) 북민협, 인도적 대북지원 즉각 재개돼야(연합뉴스)
	1.24	북한인권증진자문위, 北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출범(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대북지원	1.23	스위스, 올해 북한에 분유 1,500t 지원 계획(미국의소리)
	1.25	美 오바마행정부, 임기종료 직전 대북 인도지원(연합뉴스)
	1.27	유니세프, 오바마 정부서 대북지원 협정문 받아...후속 협의 중(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 25.

■ 유엔 아동권리위, 다음 달 초 북한 이동인권 실태 심의(연합뉴스)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다음달 6일부터 10일 사이 북한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예비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일반에 공개되는 이번 심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북한 정부 대표단을 상대로 이행보고서의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북한 대표단이 이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 예비심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지적 사항과 우려 사항,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 유엔은 지난 1989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듬해인 1990년 이 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 절차를 마쳤음. 북한은 또 지난 2014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와 매춘, 아동음란물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 23.

■ 黃권한대행 “北, 이산가족 생사확인 요구에 호응해야”(연합뉴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북한은 하루빨리 이산가족들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포함한 우리의 요구와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고 밝힘.
-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산가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역사적 무게를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함.
- 황 권한대행은 “혈육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남북관계를 떠나 인륜과 천륜의 문제”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지만, 통일부와 관계기

관이 협력해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북민협, 인도적 대북지원 즉각 재개돼야(연합뉴스)**

- 국내 55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23일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함.
- 북민협은 이날 성명을 내 “대북제재 국면이라는 이유로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전체를 막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함.
- 북민협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2017. 1. 24.

■ **북한인권증진자문위, 北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출범(연합뉴스)**

- 북한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정책을 자문하는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함. 통일부는 국회가 지난 11일 여야가 추천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정부에 보냄에 따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힘.
-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번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이날 오후 2시 홍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부터 시작됨.
-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일주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 도희운 행복한통일로 대표,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홍범식 성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5. 대북지원

2017. 1. 23.

■ 스위스, 올해 북한에 분유 1,500t 지원 계획(미국의소리)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23일 'VOA'에 올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분유 1천500t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미화 600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75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규모임.
- 한편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대북 지원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 1. 25.

■ 美 오바마행정부, 임기종료 직전 대북 인도지원(연합뉴스)

- 미국의 전임 베타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약 6년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25일 파악됨.
-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가 작년 북한 수해에 대한 긴급 구호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다가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했다”면서 “아동 영양 분야의 지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2011년 이후 약 6년만임.

2017. 1. 27.

■ 유니세프, 오바마 정부서 대북지원 협정문 받아...후속 협의 중(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6일 'VOA'에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수해 지원 자금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협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 나지와 메키 유니세프 뉴욕본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미국 현 행정부와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기금을 넘겨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년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여 만임.